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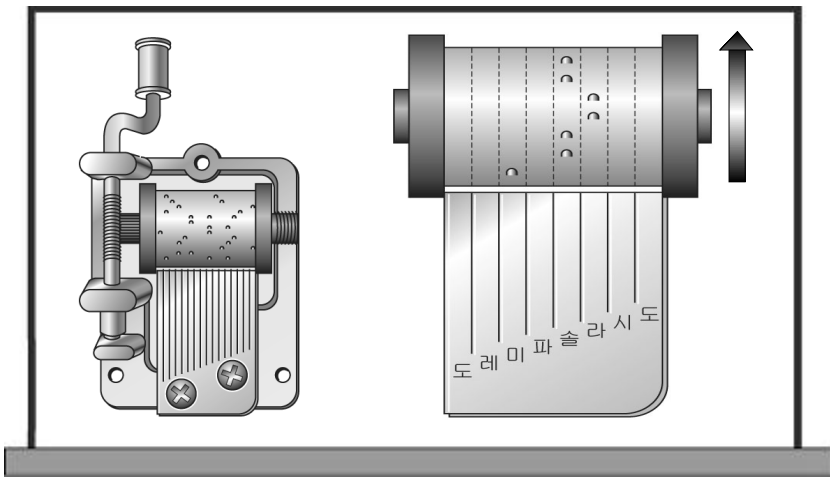
1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3점 문항과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선생님의 마지막 말에 대한 돌기의 배치로 알맞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2. (물음) 이 강연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우리 주변에서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많이 볼 수 있다.
- ② 보편적 디자인은 근래에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 ③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 ④ 보편적 디자인이라는 관점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 ⑤ 장애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 시설들을 확충해야 한다.

3. (물음) 이 대화에서 언급한 적응 현상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린 아이에게 용변을 가리도록 하여 기저귀를 뗄 수 있게 되었다.
- ② 전학을 와 친구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친구가 생겨 학교 생활이 편해졌다.
- ③ 올림픽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하여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
- ④ 철길 옆으로 이사한 초기에는 기차 소리에 잠을 자주 깨었는데 이제는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다.
- ⑤ 여행을 가지 위하여 자료를 조사하고 예약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했더니 편안하고 수준 높은 여행이 되었다.

[4 ~ 5] 들려 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이 대담에서 두 대담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제된 소비는 미덕이다.
- ② 과소비나 사치는 규제를 통하여 줄일 수 있다.
- ③ 무분별한 소비 풍조는 명품 선호 현상의 원인이 된다.
- ④ 명품 선호는 소비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 ⑤ 명품 선호 현상을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5. (물음)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대담자들의 주장을 도와 주고 있다.
- ②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담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
- ③ 대담자들이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대담자들의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 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담자들의 감정적인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9.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공익 광고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보기 >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조건> ○ 두 그림의 의미를 반영한다.
 ○ 대구와 대조의 기법을 모두 사용한다.

- ① 쓰는 데 한 시간, 썩는 데 20년 일회용품
- ② 순간의 편리함 대신에 영원히 기억될 도자기 예술
- ③ 편함을 따르면 쓰레기, 편함을 버리면 빛나는 예술
- ④ 일회용품 하나 줄일 때, 깨끗한 미래, 눈부신 예술 정신
- ⑤ 쓰레기로 남는 초라한 유산, 자부심으로 남는 위대한 유산

10. <보기>는 학생회장 후보의 연설문 초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안녕하십니까? 학생회장 후보 기호 3번 홍길동입니다.
저는 앞에 나온 후보들처럼 특별히 공부를 잘하거나, 말씀씨가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제가 학생회장 후보로 나온 것은 우리 학교를 아름다운 문화 학교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첫째, ㉠ 편안한 우리들만의 문화 공간을 학교 안에 만들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 음악은 물론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예술제를 해마다 개최하겠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체육 대회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 학교의 문화적 수준이 ㉣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이 공약들이 헛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① ㉠은 수식 관계가 모호하므로, '문화 공간' 앞에 넣는 것이 좋겠어.
- ② ㉡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하여 '음악뿐만 아니라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③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
- ④ ㉣은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으므로 '높아질'로 고치는 것이 좋겠어.
- ⑤ ㉤은 문맥을 고려하여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

11. <보기>를 참고하여 문장을 만들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기 >

관용어(慣用語)는 구조적으로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로 개별 단어의 의미의 결합이 아닌 제 3의 의미로 굳어진 말이다.
특히 우리말에는 신체와 관련된 관용어가 많다. 예를 들면, '오금이 저리다.'고 했을 때, '무릎 뒤가 마비된 듯하다.'의 의미가 아닌 '잘못이 들통날까 봐 마음을 졸이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관용어는 문법이나 논리에 따라 분석하기보다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 ① 그는 눈이 커서 겁이 많아 보인다.
- ② 나는 이제 이 일에서 손을 끊겠다.
- ③ 그는 발이 넓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 ④ 그녀는 코가 높아서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 ⑤ 범인은 현장에 떨어진 단추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12. 수업 시간에 '지시 대명사'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 ~ ㉣에 대한 학생들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과제	학습 내용
지시 대명사의 개념	지시 대명사란 어떤 사물이나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이름을 쓰지 않고, 다만 그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면서 명사가 놓일 자리에 대신하여 쓰이는 단어이다.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의한 구분 기준 및 유형	화자(話者)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일 때 : 이것, 여기 청자(聽者)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일 때 : 그것, 거기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대상일 때 : 저것, 저기
예문	㉠ 정수는 책을 보고 있는 현수에게 "그것 다 읽고 나도 빌려줘."라고 말했다. ㉡ "영희야, 이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철수가 말했다. ㉢ "영수야, 거기에 있는 사과를 여기에 있는 순희에게 건네줘." ㉣ "우리 저기에 무엇이 있나 한번 가볼까?"

- ① ㉠에서 정수와 현수는 책과 서로 다른 거리에 있어.
- ② ㉡에서 '이것'은 철수보다 영희에게 가까이 있는 사물이야.
- ③ ㉢에서 사과는 순희보다 영수에게 더 가까이 있어.
- ④ ㉣에서 화자는 영수보다 순희와 더 가까운 거리에 있어.
- ⑤ ㉣에서 '저기'는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먼 곳이야.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전 줄거리] 수택은 작가로서 글 한 편 쓰지 못하는 도시 생활에 열증을 느껴 가족과 함께 귀향한다. 아버지가 마련해 준 소작논으로 농사일을 배워 나가는데, 시골 생활은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

수택이네 집에서도 새벽부터 타작이 시작되었다. 한 모로는 벼를 저 나르고 한 모에서는 “때러라” 소리를 연발하며 위세를 올렸다. 한 모에서는 도급기(稻扱機)가 뽕뽕 하고 돌아간다. 여인네들의 치맛자락에서도 바람이 난다.

수택이도 벗어 붙이고 지게를 졌다. 아직 다리는 허청거리나 그래도 대여섯 묶음씩 저 날랐다. 인제는 벌써 그의 노동을 신성시하는 사람도 없었고 동정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명실 공히 한 농부였다. 서투른 낫질에 손가락을 두 개나 처맷지만 보는 사람도 그랬고 그 자신도 그것을 큰 상처로 알지도 않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아내 역시 호미 자루에 터진 손바닥이 아물지를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고 혼자 일어나 앉아서 밤을 새어가며 울지는 않았다. 아프니 자시니 했다가 그 말이 시아버지 귀에 들어가면 동정 대신에 편잔을 맞을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가끔 그에게는 아버지가 남에게만 후하지 자식들한테는 너무 박하다는 불평을 말하는 때도 있었으나 그것은 그가 시인을 하는 정도로서 가라앉았다. 사실 그 자신도 다소 심하지 않은가 하는 불평은 여러 번 품었었다. 손에 익잖은 자식이 서투른 낫질을 하다가 손을 다치어도 먼저 편잔부터 주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증오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도 부리나케 벼단을 저 날랐다. 이 벼단의 대부분이, 아니 어쩌면 거의 전부가 낡아빠진 맥고모자를 뒤꼭지에 붙인 되바라진 젊은 친구의 손으로 넘어가리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수택은 그것을 억지로 생각지 않으려 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위인이 나와서 버티고 선 후로는 분명히 얼굴에 검은 빛을 띠었다. 자식에게 그런 눈치를 안 보이려고 비상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엿보였다. 수택도 아버지의 이 노력에 협조를 했다.

도합 스물두 마지기에서 사십 석이 났다. 사십 석에서 스물닷섬이 소작료로 제해졌다. 사십 석에서 스물닷 섬…… 열닷 섬. 그의 지식은 처음 건조하게 쓰였다. 그러나 이 지식은 정확성을 갖지 못한 것이었다. 거기서 비료대로 한 섬 두 말이 제해졌고 아내와 계집아이들의 설사를 치료한 쌀값으로 장리변을 쳐서 열두 말이 떼였다. 지세도 작인과 지주가 반분해서 물기로 되어 있었다. 지세도 또 몇 말인지 떼였다. 그는 마질을 하는 되강구*가 바로 지주나 되는 것처럼 그의 손목이 미웠다. 우루루 덩비어 되강구의 목덜미를 잡아 낚고 벼더미 속에다 꼭 처박고 싶은 충동을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었다.

수택은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 옴팡하니 들어간 눈에서는 황혼을 뚫고 무시무시한 살기 띤 빛이 발하는 것이었다. 그는 방공

연습을 할 때의 그 휘황한 몇 줄의 탐조등 광선을 연상하였다.

김 영감은 꼼짝도 않고 한자리에 서 있었다. 벼더미를 보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마름을 노리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영감은 내년 이때까지 살아갈 길을 궁리하는 것이었다.

“자 짚어져라!”

수택은 깜짝 놀랐다. 남은 벼 여남은 섬이 가마니에 채워졌다. 전혀 자신은 없었으나 벼 이백 근을 못 지겠노란 말도 하기 싫어서 지겟발을 디밀었다.

“어차.”

옆에서는 벌써 지고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도 어차 소리를 쳤다. 땅뽕도 않는다.

“자 들어줄 게니…… 어차아.”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무릎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오금은 뜨는 등 마는 등 하다가 그대로 푹 꺾인다. 안 되겠느니 다른 사람이 지라느니 이론이 분분하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버티었다. 이를 북북 갈며 기를 썼다. 힘을 북 주었다. 오금이 떨어졌다. 그러나 다리가 허청하며 모여 선 사람들의 “저것 저것” 소리를 귓결에 들으며 그대로 픽 한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넘어간 순간,

“에이끼 천치 자식.”

하는 김 영감의 소리와 함께 빗자루가 눈앞에 획 한다. 머리에 동였던 수건이 벗겨졌다.

“나오게 내 짐세. 나와.”

하는 누군지의 말을 영감의 호통 같은 소리가 삼키었다.

“봐 두게! 봐 뒤! 나이 사십이 된 자식이 벼 한 섬 못 지겠는가. 저라 저 어서 일나!”

그는 이를 악물고 또 힘을 북 주었다. 오금이 번쩍 떴다. 뒤뚱뒤뚱 몇 걸음 옮겨 놓는데 눈과 콧속이 화끈하며 무엇인지가 흘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저 피! 코필 쏟는군. 내려놓게!”

하는 동리 사람들 소리 끝에,

“봐들 두게! 제 손으로 진 제 곡식을 못 저다 먹는 놈이 있단 말인가! 봐들 두게.”

[A] 수택은 눈물과 코피를 콧속 쏟아 가면서도 그래도 자꾸 걸었다. 내일은 우리 논 닷 마지기의 타작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억지로 즐기려 노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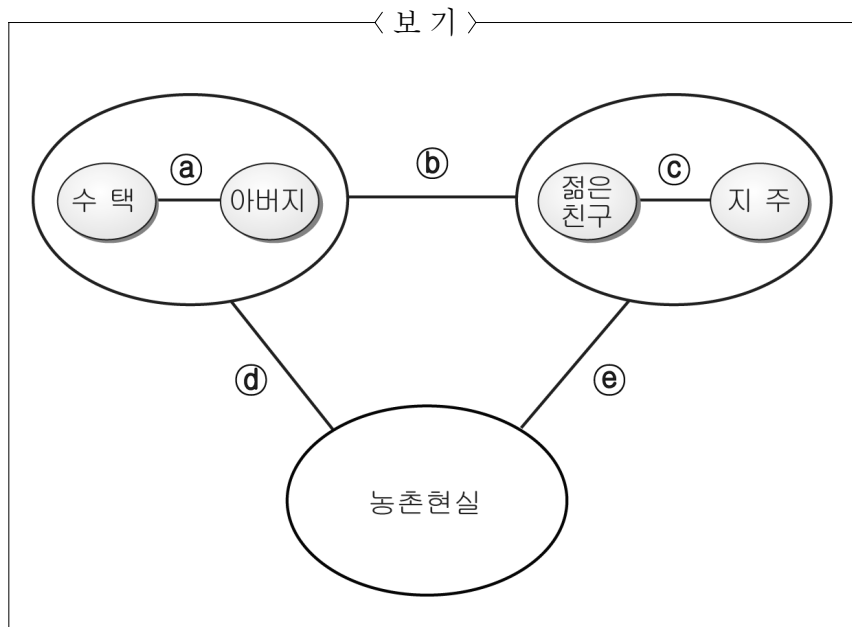
- 이무영, 「제 1과 제 1장」

* 되강구: 곡식을 사고 파는 시장판에서 되질하거나 마질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

1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간결한 문장으로 상황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②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대화와 행동을 위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과 외면을 서술하고 있다.
- ⑤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14. 위 글의 갈등 구조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아버지는 수택에 대해 불만이 있다.
- ② ㉡ : 두 계층 간의 대립 관계를 드러낸다.
- ③ ㉢ : 젊은 친구와 지주는 협력 관계이다.
- ④ ㉣ : 농촌 현실은 수택과 아버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 ⑤ ㉤ : 젊은 친구와 지주는 농촌 현실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15. <보기>는 이 작품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A]에 나타난 ‘수택’의 심리를 추리해 볼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시골 시골 해두 난 이런 시골은 못 봤어요. 산이 하나 변변한가 물 한 줄기가 시원한가. 이런 곳에 와 살 바에야 만주 벌판에 가서 황무지를 일구어 먹지.”

사실 수택이도 이 아내의 말에는 동감이었다. 전에도 무심히 보아 그랬던지 자연도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으나 멀썩한 포플러와 아카시아 숲이 실개천 가에 나 있을 뿐 이렇다는 특징도 없는 산천이다. 장성해서는 가 본 일도 없었지만 어렸을 제의 기억대로라면 그 아카시아 숲 앞에는 상당히 깊은 물도 있었고 큰 고기도 은비늘을 번득이었고 숲에서는 매미며 피꼬리도 울었던 것같이 기억이 되었으나 다시 가 보니 조그만 웅덩이에는 오금에 차는 물이 고였고, 가문 탕도 있겠지마는 송사리 때가 발소리에 놀라서 찼찼 찼 찼이다. 숲 속의 원두막 정취도 그지없이 시적인 듯이 기억이 되었으나 막상 가 보니 그도 평범하기 짝이 없다.

- ① 경치도 멋없고 농사짓기도 힘든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내 본분을 찾아 도시로 돌아가야겠다.
- ② 내가 왜 이곳을 멋없는 고장이라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수확을 끝내놓고 보니까 마음이 든든해서인지 경치가 참 아름답다.
- ③ 예전에 나는 아름다운 자연만을 추구하면서 철없이 굴었지.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는 당당한 농사꾼이 되었다.
- ④ 기껏 농사를 지어 겨우 사십 석밖에 수확을 못하다니, 역시 이 곳은 풍경만 실망스러울 뿐만 아니라 농사짓기에도 척박한 고장이다.
- ⑤ 난 이 곳을 서정적인 전원으로만 생각해 왔어. 진정한 농사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16.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작하는 광경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에 멍석을 깔고 도급기를 설치하자.
- ② 아버지는 마른 체격에 강단 있어 보이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배우가 맡는 것이 좋겠어.
- ③ 수택은 마을 사람들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으나 안경을 껴 도회지 사람의 인상을 주도록 해야 해.
- ④ 타작할 벧단을 저 나르는 수택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모여 구경거리인 듯 쳐다보는 장면을 만들자.
- ⑤ 맥고모자를 쓴 젊은이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무겁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정에서 냉동 피자를 익히거나 팝콘을 튀길 때 전자 레인지(microwave range)는 매우 유용하다. 이 외에도 온갖 음식을 데우기도 하고 익힐 수도 있다. 전자 레인지에는 열을 만드는 발열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요리 재료에 물기만 있으면 데워지거나 익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전자 레인지는 2차 대전 직후 미국 레이디온사에 근무하던 스펜서(Spencer)에 의해서 개발되었다. 그는 레이더의 마이크로파 발생기인 마그네트론(magnetron)에 대해 연구하다가 우연히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초콜릿이 녹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직관적으로 마이크로파가 음식을 빠르게 익힐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 일은 전자 레인지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유도하여 진행되는 전자기파에는 무선 통신이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파장이 긴 것도 있지만 파장이 매우 짧은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파장이 0.1mm ~ 30cm의 짧은 전자기파를 마이크로파라고 ㉠ 부른다. 전자 레인지는 파장이 12.2cm인 마이크로파를 사용한다. 이 마이크로파는 1초에 수십 억 번이나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초고주파이다. 전기장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물 분자를 구성하는 약한 음전하를 띠는 하나의 산소 원자와 약한 양전하를 띠는 두 개의 수소 원자는 회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 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해 음식물이 가열되는 것이 전자 레인지의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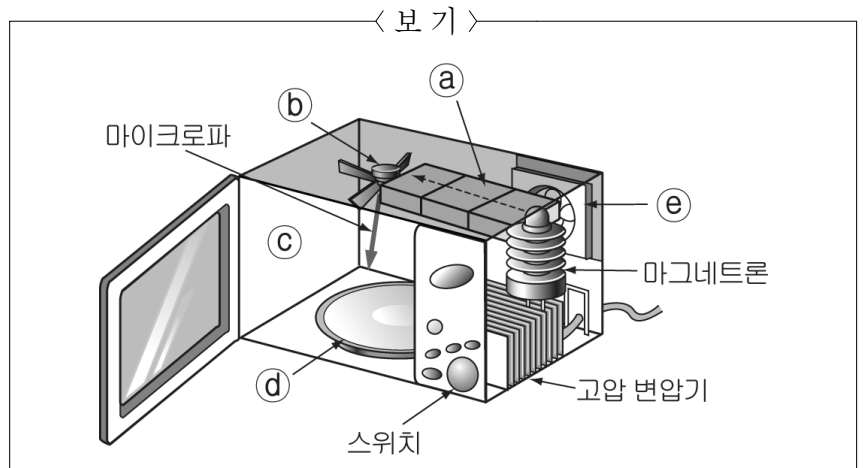
마이크로파는 수분을 함유한 음식물에는 잘 흡수되며, 공기와 종이, 유리, 흙 등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는 잘 투과된다. 따라서 전자 레인지는 음식물을 표면부터 가열하지 않고 내부와 외부를 동시에 가열하여 조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타민과 같은 영양분의 파괴도 상대적으로 적고 음식물도 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은박지와 금속 식기류는 마이크로파를 반사하기 때문에 가열되지 않으며 끝이 날카로운 금속은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하므로 이곳에 마이크로파가 집중되어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전자 레인지의 구성 요소와 작동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전자 레인지는 고압 변압기, 마그네트론(magnetron), 도파관(waveguide), 교반기(agitator), 회전판(turntabl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마그네트론은 고압 변압기에서 송출된 약 3,800V의 고전압을 이용해 인출된 전자를 자기장에 의해 공진시킴으로써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킨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는 속이 빈 관 형태의 도파관을 통해 전자 레인지 조리실 상단 부분에 위치한 교반기로 이동하는데, 이 교반기는 마이크로파를 다양한 방향으로 분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전자 레인지 조리실 벽면은 마이크로파를 반사하여 내부에서만 마이크로파가 계속 되튀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 레인지 내부의 크기는 마이크로파의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이어야 한다. 조리실 하단에 있는 회전판은 음식물을 올려 놓는 곳으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 이 부분은 회전하면서 음식물이 마이크로파를 골고루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때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기계 내부의 열은 전자 레인지 뒷면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냉각팬으로 식힌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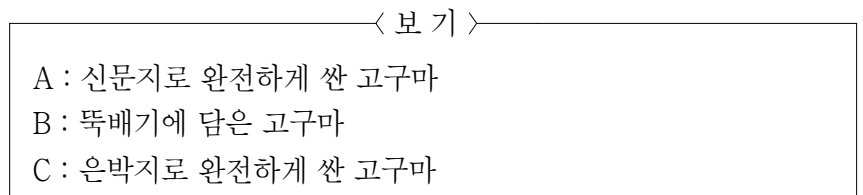
- ① 전자 레인지로 물기가 없는 재료를 조리하기는 어렵다.
- ② 전자 레인지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은 마이크로파이다.
- ③ 마이크로파가 음식물의 물 분자에 영향을 주어 마찰열을 일으킨다.
- ④ 전자 레인지 속의 음식물은 표면에 도달한 열의 전도에 의해서 가열된다.
- ⑤ 전자 레인지에 사용되는 전자기파는 전기장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초고주파이다.

18. 위 글을 바탕으로 전자 레인지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구성할 때, 음식물의 일부분만 익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 마이크로파가 손실 없이 전송될 수 있는 유리 재질로 보강한다.
- ② b : 마이크로파가 일정한 방향으로 집중되도록 설계한다.
- ③ c : 마이크로파를 완전하게 반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④ d : 회전 각도를 90°로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왕복하도록 한다.
- ⑤ e : 크기를 두 배로 큰 것을 사용하여 냉각 속도를 향상시킨다.

19. 위 글을 바탕으로 전자 레인지를 이용해 <보기>의 ‘고구마’를 조리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알맞은 것은?



	A의 결과	B의 결과	C의 결과
①	잘 익음	잘 익음	익지 않음
②	잘 익음	익지 않음	잘 익음
③	익지 않음	잘 익음	은박지에 붙어 붙음
④	익지 않음	익지 않음	잘 익음
⑤	신문지에 붙어 붙음	잘 익음	익지 않음

20. ㉠과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1점]

- ① 그가 갑자기 만세를 부른다.
- ② 그 가게는 값을 비싸게 부른다.
- ③ 어머니는 집으로 손님을 부른다.
- ④ 금강산을 개골산이라고도 부른다.
- ⑤ 그는 노래방에서 유행가를 부른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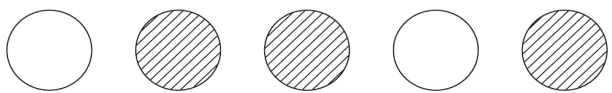
언어 습득의 단계는 언어 이전 시기와 언어 사용 시기로 나뉜다. 아이들의 언어 습득은 소리의 발화로부터 시작되는데 생후 초기의 외침, 울음 소리, 새근거림 등은 언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한 언어는 완전히 자극에 의해 통제될 뿐이지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어야 언어 습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린아이는 약 6개월 정도가 되면 웅얼이를 시작하는데 웅얼이는 어린이가 발음 연습을 하고, 발음 기관들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절하기 위한 훈련으로 생각된다. 웅얼이의 과정은 아기가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언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대략 한 살이 지나면서부터 어린아이는 첫 번째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 어린아이들의 어휘는 주로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단음절 어휘들이 많고, 한 단어로 문장 전체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를 ‘한 단어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떤 소리가 어떠한 의미와 연관되는가를 배우며 발화의 대상이 직접 눈앞에 존재할 때만 해당 단어를 발화할 수 있다. 두 살 정도가 되면 어린아이는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단어들을 결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시기의 문장에는 아직 문법적 기능어들이 나타나지 않고 핵심적인 단어만을 나열하여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므로 이 시기를 ‘두 단어 시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대상 언어의 어순을 지키고 내부 구조를 갖춘 발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어린아이가 세 단어 이상을 결합하기 시작하면, 아이는 곧 그 이상 개수의 단어들을 결합할 줄 알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의 단어 결합 능력과 시기는 아이마다 다르다. 이 시기에 어린이는 실제 구문 형식을 갖춘 문장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언어가 점차 정교해지고 어휘의 수도 급속하게 증가한다. 수식어와 접속어의 사용이 늘고, 보다 복잡하고도 수준 높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특히 어린아이가 문법 규칙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말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어린이 발화의 초기에 나타나는 소리의 패턴은 어른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어린아이가 어려운 음을 쉬운 발음으로 변경시켜 발화하려는 보편적인 성향 때문이다. 즉 ‘할아버지’를 [하부지]로, ‘고기’를 [꼬]로 음절을 단순화하거나, ‘선생님’을 [똌똌니], ‘고맙습니다’를 [고마똌다]처럼 발음하기 어려운 자음을 유사한 계열의 발음하기 쉬운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하기도 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인지 능력과 발화 능력이 불일치하는 현상은 아이들의 조음 기관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이의 언어를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스티븐 크레인은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었다.



[A]

이 그림에서 ‘두 번째 줄무늬 공’을 골라내라고 한 결과, 아이들이 줄무늬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두 번째 공을 골라내는 것을 관찰하였다. 아이들에게는 ‘두 번째’란 수식어가 ‘줄무늬’란 수식어보다 우선권을 행사하므로 무조건 ‘두 번째 공’을 고른다. 이에 반해 어른들에게는 ‘줄무늬’가 우선권을 행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줄무늬 공’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된다. 그러므로 ‘줄무늬 공’ 중에서 ‘두 번째’를 골라낸다는 것이다.

21.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린이들은 단계적으로 언어를 습득한다.
- ② 어린이의 언어 능력에 따라 발화의 길이가 달라진다.
- ③ 어린이들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어휘력이 빠르게 증가한다.
- ④ 어린이들은 인지 능력과 발화 능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⑤ 어린이들은 처음 듣는 문장을 전에 기억해 놓았던 문장과 비교해서 이해한다.

22. 위 글을 바탕으로 각 시기별 언어 사용의 특징을 정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 기		언어 사용의 특징
언어 이전 시기	생후 초기	㉠ 배고픔이나 아픔 등을 울음으로 표현한다.
	웅얼이 시기	㉡ 웅얼이는 발화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언어 사용 시기	한 단어 시기	㉢ 아기가 말한 ‘엄마’라는 발화에는 상황에 따라 ‘엄마 젖 줘’, ‘엄마 미워’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두 단어 시기	㉣ 아이가 목이 마를 때 ‘물 줘’와 ‘줘 물’을 섞어 쓰기도 한다.
	세 단어 이상 시기	㉤ ‘엄마가 빵을 주었어요’의 주격조사 ‘-가’를 ‘선생님이 빵을 주었어요’와 같이 확대하여 사용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3. [A]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이들은 문장 구조를 창조적으로 습득한다.
- ②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언어를 교정한다.
- ③ 아이들과 어른들은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 ④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모방함으로써 언어를 습득한다.
- ⑤ 아이들은 대상을 구별하여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무도 그에게 ㉠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 청(靑)무우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나)

향단아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 달같은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波濤)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鞦韆詞)-춘향의 말1」

(다)

내 어렸을 적 고향에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영산(靈山)이었다.

영산은 낮에 보이지 않았다.
산허리까지 잠긴 짙은 ㉤ 안개와 그 위를 덮은 구름으로 하여
영산은 어렴풋이 그 있는 곳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영산은 밤에도 보이지 않았다.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 달빛 속에 또는 별빛 속에 거무스레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수도 있지만 그 모양이 어떠한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영산이 불현듯 보고 싶어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이상하게도 영산은 온데간데 없었지
고 이미 낯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산은 이곳에
없다고 한다.

- 김광규, 「영산(靈山)」

24.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대화의 형식을 빌려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선의 이동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가) ~ (다)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화자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 (다)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대상 속에 감춰진 위험을 의미한다.
- ② ㉡은 '흰나비'가 지향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화자가 현실에서 겪는 장애를 의미한다.
- ④ ㉣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 ⑤ ㉤은 현실과 이상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26. <보기>의 화자가 (가)의 ‘흰나비’에게 조언해 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바닷가에 매어 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머털리 노를 저어 나가서
헤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 김종삼, 「어부(漁夫)」

- ① 눈앞에 이익을 좇기보다는 멀리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 ② 기적은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현실이 되는 법입니다.
- ③ 삶은 외로움의 연속이기에 이웃과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④ 힘겨운 현실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는 법입니다.
- ⑤ 삶은 얼마나 화려한가보다는 얼마나 충실한가로 평가되는 법입니다.

27. (다)를 감상하고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1 : 누구나 동경의 대상이 있듯이 화자 역시 어린 시절부터 무엇인가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어.
- ② 학생2 : 맞아, 바로 그 대상이 화자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영산’이라는 공간이야.
- ③ 학생3 : 그리고 꿈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화자의 태도가 숭고하게 느껴져.
- ④ 학생4 : 하지만 화자의 꿈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
- ⑤ 학생5 : 그래도 어른이 된 화자에게 ‘영산’의 상실은 꿈의 좌절만이 아니라 현실 자각의 계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윤이 도적이 다시 올 줄 알고 염초, 화약과 화전, 도창 등을 많이 준비하여 활쏘기와 창쏘기를 익히니, 군사들이 무예 모르는 자 없고 또한 전선(戰船)을 많이 준비하여 수전(水戰)을 익히더라.

이때 호왕(胡王)이 영아대 등의 팔장(八將)을 가리어, 정병 삼만을 거느리고 다시 조선을 치라 하니, 팔장이 명을 듣고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에 이르러 물을 건너려 하므로, 부윤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배를 급히 저어 나아가니, 그 빠른 양이 화살과 같았으니, 적진에 다 달아나는 배를 급히 쫓으며 화전과 화포를 일시에 놓으니, 맞아 죽는 자 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적진이 크게 어지럽거늘, 부윤이 급히 배에 내려 손에 장창을 들고 나는 듯이 적진 중에 들어가 좌충우돌하여 적장의 머리를 베어 내리치니, 적병이 ㉕ 스스로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더라. 부윤이 일진을 대살(大殺)하고 군사를 거두니 적군의 머리가 오천이고 제장과 군졸이 항복치 아니하는 자 없더라.

이때 부윤이 관중에 돌아와 승전한 연유를 조정에 보고하니, 상께서 의주 부윤의 보고를 듣고 북방 근심이 없어 침식이 편안하시매, 만조 백관이 태평시를 읊어 마음을 적이 놓았더라.

【중간 줄거리】 적장 용골대는 오만 명을 거느리고 바다로 우회하여 경성으로 쳐들어왔다. 왕대비와 세자 대군 삼형제는 강화도로,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갔으나, 왕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결심했다.

성문을 열고 상감께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성 밖에 나와 항복하시니, 적장 용골대가 만고 승전비를 송과 큰 들에 세웠더라. 상께서 궁궐에 돌아오시어 각 읍에 전하여 강화(講和)하였음을 알리고, 적장 용골대는 왕대비만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 삼형제는 볼모로 잡아 가니, 이때 임경업이 의주에 있어 오랑캐의 동정을 살펴 제어코자 하였으며, 그 때 문득 멀리 들리는 소리 있어, 오랑캐가 요수를 건너 북도로부터 봉화 방면의 수비군을 다 죽이고 저희들이 스스로 불을 밝혀 물려와 도성을 함몰하고 항복받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통곡하며,

㉖ “내 힘을 다하여 국은(國恩)을 갚고자 하였더니,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하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급히 군사를 거느려 경성으로 향하고자 하나 일이 이미 글러진 후에 가서 무엇을 하리오 하고, 적병의 귀로(歸路)에 분을 풀기로 기약하더라.

이때 용골대는 세자 대군 삼형제를 잡아가는데, 대군이 망극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왕께 하직하고 떠나가니, 상께서 통곡하시며,

“슬프다. ㉗ 하늘이 과인을 망케 하시니 뉘를 원망하리오?”

하시고 눈물이 비오듯하시니, 여러 신하가 다 슬퍼하더라.

호장(胡將)이 대군을 거느려 의주 지경에 이르니, 의주 부윤 임경업이 진을 치고 기다리다가 호장을 보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선봉장을 베어 말 아래 내리치고 적진으로 몹시 쳐 들어가니, 적의 군졸들이 불의의 변을 당하여 뉘 능히 당하리오? 호장 용골대가 멀리서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너희의 임금에게 항복받고 세자와 대군을 잡아 가거늘, 너희는 무슨 연고로 이렇듯 항거하느냐?”

부윤이 꾸짖어 말하기를,

“너희 개 같은 놈이 간사한 꾀를 내어 나를 속이고 셋길로 경성에 들어가 우리 임금을 꺾박하고 세자 대군을 뒤흔다 하니, 나라

의 욕을 끼치고 무슨 면목으로 생을 탐하리오? 차라리 너희를 다 죽여 내 한을 씻으리라.”

하고 몹시 쳐 들어가니, 용골대 능히 대적치 못하고 진을 굳게 하고 나오지 아니하거늘, 부윤이 크게 꾸짖기를,

“㉔ 은혜를 잊고 의리를 배반하는 도적아! 빨리 나오지 아니하느냐? 내 먼저 너를 죽여 간을 씹어 한을 풀리라.”

하고 호병을 무수히 죽이니, 호적이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줄을 몰라 하더라.

이에 용골대가 한 가지 계교를 생각하여 급히 사신을 보내어 왕에게 전하되,

“이제 의주 부윤 임경업이 대군 수만을 거느려 길을 막고 우리 군사들을 치니, 국왕은 명령을 내려 길을 열어 주라 하소서.”

하더라. 상께서 호장의 말을 듣고, 경업의 충성을 탄복하시며 경업에게 편지하시되,

“장군의 위국(爲國) 충성은 비록 태산 같으나, 이미 화친하였으니 이제 어찌하리오? 길을 열어 보내라.”

하였거늘, 부윤이 임금의 전갈을 받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호진(胡陣)에 들어가 용골대를 보고, 세자 대군께 뵈었더라.

대군이 부윤의 손을 잡으시고 울며 말하기를,

“장군이 만일 미리 알았으면 어찌 이런 환란이 있으리요? 이는 다 하늘의 뜻이라. 장군은 힘을 다하여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소서.”

하시며, 슬피 통곡하시니, 그 형상을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오매, 부윤이 울며 여짜오되,

“소신이 이 같은 난세를 당하여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사오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신이 죽기 전에는 이 한을 벗겠사오니, 전하께서는 평안히 행차하시옵소서. 신이 힘을 다하여 수이 돌아오시게 하여 드리겠나이다.”

대군이 칭찬하여 말하되,

“만일 장군의 말씀 같을진대, 우리의 목숨이 장군께 달렸으니, 부디 잊지 말라.”

하고, 언약한 후 부윤이 대군을 모셔 압록강을 건너가니, 그 형상이 비참하더라.

대군이 부윤의 손을 잡으시고 통곡 이별하시니, 의주 백성들이 슬퍼함을 마지 아니하였고, 부윤이 돌아와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날마다 군마를 연습하여, 청나라에 들어가 호왕을 베고 대군을 모셔 돌아오려고 주야(晝夜)로 연구하였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으리라.

- 작자 미상, 「임경업전」

28.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용골대는 조선 국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 ② 호적은 조선을 여러 번 침입한 결과 항복을 받아냈다.
- ③ 임경업은 대군 일행을 구출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다.
- ④ 임경업은 호적이 우회하여 경성에 침입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
- ⑤ 왕은 임경업이 호적의 침입을 막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29.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임경업’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의를 보면 분을 이기지 못한다.
- ②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한다.
- ③ 상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 ④ 상대방의 심리를 적절히 이용할 줄 안다.
- ⑤ 미래를 대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할 줄 안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병자호란>

1636년 12월 9일 청나라는 조선이 자국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청 태종은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쳐들어왔다. 의주 부윤 임경업은 백마산성을 굳게 지켜 청군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나, 선봉장 마부대는 이 길을 피하여 서울로 진격하였다. 봉림대군·인평대군 등은 강화로 피난하였고, 인조는 소현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피하였다. 그러나 16일 청나라 선봉군이 남한산성을 포위하였고, 1월 28일에 청군은 용골대·마부대를 보내 강화조약 조항을 제시하여 마침내 1월 30일 인조는 성문을 나와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그리고 청군은 소현세자·빈궁·봉림대군 등을 인질로 잡아갔다.

1645년 10년의 불모 생활 끝에 세자와 봉림대군은 환국하였으나 세자는 죽고, 인조의 뒤를 이은 효종(봉림대군)은 불모 생활의 굴욕을 되새기며 북벌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 ① 역사적 패배를 정신적으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어.
- ② 남한산성에서 청나라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어.
- ③ 의주, 송파, 압록강 등 실재하는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현실감을 느낄 수 있어.
- ④ 임경업, 용골대 등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 사실적으로 느껴져.
- ⑤ 임경업의 대화가 세자보다 대군에게 집중된 것은 대군이 왕이 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

31. ㉠ ~ ㉣의 상황을 나타낸 한자 성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부지기수(不知其數)
- ② ㉡ : 사분오열(四分五裂)
- ③ ㉢ : 진충보국(盡忠報國)
- ④ ㉣ : 인명재천(人命在天)
- ⑤ ㉤ : 배은망덕(背恩忘德)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양한 문화 체험을 제공해 주는 소설과 만화는 이야기거리를 좋아하는 현대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두 장르가 지닌 장르상 특징을 살펴보면 이 두 장르가 빚어내는 이야기의 세계에 한 발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

두 이야기 갈래는 모두 시간적 서술의 범주 안에서 공간적 서술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문자 매체인 소설이 선조적(線條的)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적 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시각 매체인 만화는 이미지를 배치하는 공간적 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소설의 서술은 공간적 표현에 상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소설이 공간보다는 시간을 처리하는데 더 수월한 이야기 갈래이며, 시간의 경과를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만화는 여러 인물을 동시적으로 포착하는 공간 구성이 자유롭다. 만화 텍스트의 한 칸은 시간과 공간을 분절한 이야기 단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그만큼 많은 이야기 요소를 동시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을 뜻한다. 동시적인 제시가 가능한 만큼 다른 차원의 시간과 공간 역시 동시적으로 보여 줄 수도 있다.

한편 소설은 이미지를 언어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가에게는 절망에 가까운 고뇌를, 독자에게는 고도의 집중력과 상상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작가와 독자 양쪽이 언어를 매개체로 하여 주고받는 작업으로서 작가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독자의 그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그 불일치는 소설 읽기의 매력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만화는 형상을 그림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 수용이 손쉽고 빠르다. 더욱이 문자화된 지문을 삽입하기 때문에 보여주기(showing) 기법만 사용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소설을 만화화할 때, 작가는 소설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고도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에 가장 걸맞은 형상을 창조해 내며, 사건의 진행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화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사물에 대한 수용은 상대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인물의 묘사와 관련해서도 소설과 만화는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 만화의 칸은 인물이 보이는 표정과 동작의 특징적 순간이 선택된다. 즉 칸은 이야기 단위인 다른 칸과 불연속적으로 접합하게 되면서 칸안의 요소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핵심적인 시각적 요소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 결과 불필요한 부분이 생략되고 필요한 부분은 과잉에 가깝게 보태지면서 다른 칸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시간과 공간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 만화의 경우 인물의 외양은 전형성(典型性)을 띠게 되거나 단순화될 확률이 높으며 때로는 의미 작용의 효율성을 위해 과장과 비약을 담게 되기도 한다.

요컨대 소설의 공간은 불확정적으로 제시되는 관념적 공간임에 비해, 만화의 공간은 확정적으로 제시되는 구상적 공간이므로, 동일한 서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각각의 자신의 매체적 성격과 특성에 합당한 텍스트의 구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 선조적(線條的)인 질서 : 구성 요소들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질서

32.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두 대상의 단점을 제시한 후 이를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③ 기존의 통념에 대하여 반박을 한 후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④ 두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 ⑤ 한 분야의 특징을 다른 분야의 특징으로부터 유추하여 서술하고 있다.

3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1>과 <보기2>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1>

오가는 본래 강음(江陰) 사람으로 서울 가서 노름꾼으로 떠돌다가 부평 계양산으로 불려가서 화적 괴수의 사위가 되고, 장인이 죽은 뒤에 아내와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가진 재물로 땅을 장만하고 농사짓고 살려던 것이 땅을 토호(土豪)에게 먹히고 분김에 남은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이 산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지가 십 년이 넘었는데, 낫살이 많아지니 자연 힘들고 고생스럽다는 생각도 나려니와 슬하의 일점혈육인 딸자식이 죽은 뒤에 마누라가 남에게 나쁜 짓을 많이 한 탓이라고 사설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하락>

- 홍명희, 「임꺽정」

<보기2>



- ① <보기1>은 사건을 요약하여 시간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 ② <보기1>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능동적인 상상이 필요하다.
- ③ <보기2>는 독자에게 관심을 끄는 장면을 선택하여 몇 개의 칸으로 구성하였다.
- ④ <보기2>는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인물의 표정과 행동 중에서 특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보기2>는 사건의 진행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자 언어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34.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탐정 만화의 주인공은 영특한 느낌이 나도록 머리 부분을 확대한다.
- ②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은 순수함이 드러나도록 눈을 맑고 크게 그린다.
- ③ 코믹 만화의 주인공은 웃음을 유발하도록 신체의 일부분을 변형한다.
- ④ 풍자 만화의 주인공은 평범한 인상이 느껴지도록 사실적인 모습으로 그린다.
- ⑤ 무협 만화의 주인공은 구원자의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균형 잡힌 신체와 의지가 강해 보이는 얼굴로 묘사한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르고 갔는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아아, 극락 세계에서 만나 볼 나는
도(道)를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나)

이 몸 태어날 때 입을 따라서 태어나니
한평생 연분(緣分)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는 오직 젊어 있고 입 오직 날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데 전혀 없다.
평생(平生)에 원하기를 함께 살려 하였더니
늙어서 무슨 일로 외파로 두고 그리는고.
옛그제 입을 모시고 ㉠ 광한전(廣寒殿)에 올랐더니
그 사이 어찌하여 하계(下界)에 내려 오니
내려 올 때 빛은 머리 얽힌 지 ㉡ 삼 년(三年)이라.
연지분(胭脂粉) 있지마는 누굴 위하여 곱게 단장할까.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히 쌓여 있어
짓는 것이 한숨이요 흐르는 것이 눈물이라.
인생은 유한(有限)한데 근심은 한이 없다.
무심(無心)한 ㉢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염량(炎涼)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
㉣ 동풍(東風)이 문득 불어 적설(積雪)을 헤쳐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梅花)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차가운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인가.

황혼(黃昏)에 달이 따라와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 매화(梅花) 꺾어내어 임 계신데 보내고자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

(다)

원래 소박하셨던 아버님은 읍내 출입이 있을 때마다 40리나 되는 먼 길을 아예 걸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새벽 일찍이 길을 떠났다가 으레껏 황혼이 지나서야 오셨다. 심한 경우는 백 리가 넘는 전주 나들이도 보행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내가 겨우 열 살을 지난 뒤부터 시작한 마중이 제법 익숙해졌다. 외지에 나가 중학을 다닐 때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올 때면 나는 이 마중 같은 일로 학자(學資)를 토색질*하던 불계수(不計數)의 빚을 갚으려고 했었다. 확실히 그런 예우가 있고 나면 책값을 주실 때 관대하셨다. 그리고 우람스런 머슴을 앞세우고 깜박이는 초롱불로 길을 밝히면서 도깨비 얘기나 들으면서 오싹오싹한 밤길을 걷는 데 짜릿한 재미도 약간 느끼곤 했었다.

그 밤도 그러한 몇 가지 속셈이 있었는지 모른다. 그럴수록 목적을 위해선 아버님을 꼭 마중해야 된다는 다짐을 굳혔었다. 이윽고 멀리 필력이든 하얀 두루마기를 보곤, 평소 응석 한번 부려보지 못하고 자란 주제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외쳤다. 그리고 우리 형제는 장신의 아버지 뒤를 따라 줄랑줄랑 돌아왔다. 여느 아빠처럼 두 팔에 형제를 거느리고 사탕이라도 한 개 속주머니에서 꺼내 주셨으면 했지만, 그렇게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더욱 그렇다. 도연명(陶淵明)이 낙향할 때 문간에서 마중했던 그의 치자(稚子)*보다 우린 더욱 어리석어서 먼길을 두근거렸는지 모른다.

우리들 자식이 원행(遠行)의 아버님을 마중하던 곳은 먼 고개를 넘어 돌들이 이룬 성황 고개요, 비단물이 반짝이는 청강수(淸江水)* 징검다리요, 숨이 깔딱이는 높은 비석재*였다. 요즘처럼 편리하게 시리 문전에서 영송하는 것은 사무적이어서 싫다. 통금 5분 전에 귀가하는 탕부(蕩父)나 낭아(浪兒)가 아닌데도 벨 소릴 듣고서야 슬리퍼를 끌며 발발이와 함께 문을 열어 주는 그런 것은 더욱 싫다.

지금은 분초를 다투는 약속에 서로 묶여 줄달음하는 정밀 기계 시대다. 옛날 우리 부조(父祖)들이 사랑하는 친구들과 재회를 약속할 땐 ‘꽃이나 피거든 만나세.’ 아니면 ‘풍엽(楓葉)이 만산(滿山)할 제 만나세.’ 등등 정말 아리송한 그런 거였다. 거기에 비하면 아버님의 귀가 시간은 훨씬 구체적이었고, 기계 시대에 비하면 훨씬 애매했다. 시린 손을 부비며 고갯마루 **고추바람** 속에서 언제쯤 거나한 취기를 데불고 홀연히 시계(視界)에 나타나실 아버님을 마중함엔 기다리는 기쁨이 있다.

살벌한 오늘의 서울에서도 때로 예고 없이 소낙비가 내리는 초저녁 주택가 입구를 스치면, 많은 아주머니나 어린 자녀들이 우산을 들고 누구를 기다리는 풍경을 본다. 지금쯤 어느 대폿집에

서 술타령하는 남편이나 아버를 기다리는 뜨겁고 목마른 풍경을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초승달이 지고 까맣게 어두운 고개에서, 지금은 다시 뵈울 수 없는 아버지의 하얀 두루마기를 기다리느라 우리 형제가 등을 맞대고 추위를 견디었던 무섭도록 적막한 밤이 그립다.

- 허세욱, 「초승달이 질 때」

- * 토색질 : 금품을 억지로 조르거나 빼앗아 가짐. 여기서는 부모님께 학비를 받는 것을 비유
- * 치자(稚子) : 열 살 전후의 어린 아이
- * 청강수(淸江水) : 맑은 강물
- * 비석재 : 빗물이 서 있는 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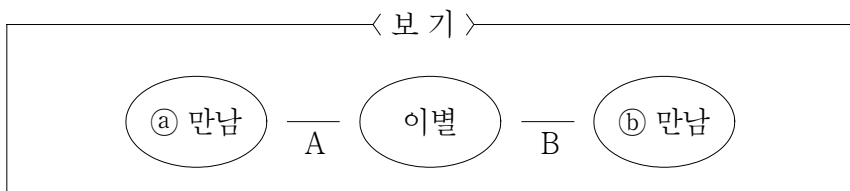
35. (가) ~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부재 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한 원망(怨望)을 보여주고 있다.
- ③ 문제 상황의 개선에 대해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다.
- ⑤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적 신념이 드러나 있다.

36. (가)의 **바람** 과 (다)의 **고추바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바람’과 ‘고추바람’에는 모두 상실의 슬픔이 담겨 있다.
- ② ‘바람’과 ‘고추바람’은 모두 화자의 처지에 대한 개선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③ ‘바람’은 초월적 대상에 관련되고, ‘고추바람’은 현실적 삶과 관련된다.
- ④ ‘바람’과 ‘고추바람’은 모두 화자가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바람’은 비관적 태도를 나타내고, ‘고추바람’은 낙관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37.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같은 나뭇가지’라는 표현을 통해 이승에서의 인연(因緣)임을 보여주고 있다.
- ② (나)는 불교적 윤회 사상(輪回思想)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③ A는 ‘같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통해 비유적으로 나타난다.
- ④ B는 ‘도(道)를 닦으며 기다린다.’는 화자의 행위로 나타난다.
- ⑤ A에 나타난 이별의 아픔이 B에서는 점점 고조되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임과 함께 했던 공간을 의미한다.
- ② ㉡ : 화자가 임과 떨어져 보낸 시간을 의미한다.
- ③ ㉢ : 화자에게 덧없이 흐르는 시간을 의미한다.
- ④ ㉣ : 화자에게 주어진 가혹한 현실 상황을 의미한다.
- ⑤ ㉤ :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담고 있다.

39. (다)를 감상하고 나는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향토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지난 시절에 대한 애뜻함을 부각시키고 있어.
- ② 화자의 시선을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하여 그리움을 심화시키고 있어.
- ③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여 인생의 목적을 이끌어 내고 있어.
- ④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마중’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떠올리고 있어.
- ⑤ 여유로움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과 과거의 삶의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어.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06년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태양계 행성의 정의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그 결과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제 9행성 명왕성이 행성에서 제외되었다. 오랫동안 행성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명왕성이 행성에서 제외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천문학계에서는 이전부터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그 이유로 명왕성이 다른 행성들에 비해 크기가 현저하게 작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명왕성의 적도 지름은 약 2,300 km 정도로 달의 지름 3,476km보다도 작다. 둘째로 명왕성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궤도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이다. 태양계 행성의 궤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개 원에 가깝다. 그런데 명왕성의 궤도는 타원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는 해왕성 궤도의 안쪽까지 파고든다. 더욱이 각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에는 대개 같은 하나의 평면 위를 지나지만 명왕성의 궤도만은 이 평면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나 기울어져 있다. 셋째로는 최근에 명왕성 가까이에서 명왕성에 필적하는 크기의 천체가 여럿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1992년에 명왕성의 궤도 부근에서 카론 이외의 천체인 지름 100km정도의 소행성을 발견하였다. 그 뒤 고성능 망원경을 이용해 명왕성의 주변에서 계속 새로운 천체들을 발견하였다. 관측이 진행될수록 명왕성과 이들 소행성의 크기의 차가 줄어들었다. 이들 천체들은 ‘카이퍼 벨트’ 또는 ‘해왕성 궤도 통과 천체’라고 불린다.

다른 행성에 비해 작은데다가 그 주변에는 비슷한 천체가 많은 명왕성을 과연 행성으로 불러야 하는가? 세레스가 같은 이유로 행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처럼 명왕성은 행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해왕성 궤도 통과 천체’의 하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라는 의견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게 되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명왕성보다 큰 새로운 천체가 언젠가 반드시 발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배경에서 발견된 것이 2003UB₃₁₃이다. 2003UB₃₁₃은 지름이 명왕성보다 약간 큰 2,400km 정도로 추측된다. 명왕성보다 더욱 타원에 기울어진 궤도를 가지고, 그 궤도의 일부가 명왕성과 겹친다. NASA(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이것을 명왕성 다음에 있는 제10행성으로 발표해 화제가 되었다. 이렇게 명왕성보다 큰 천체는 앞으로 또 발견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행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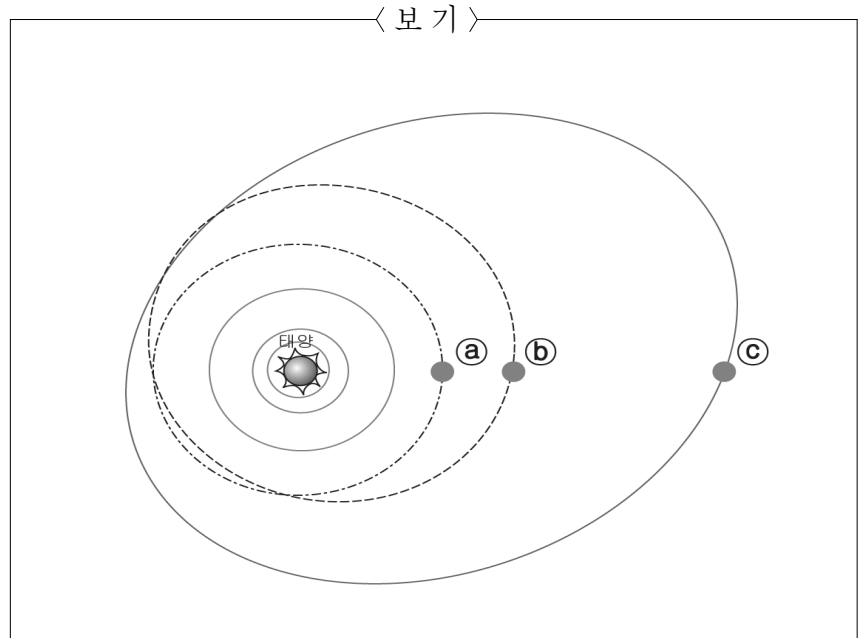
상황이 이렇게 됨에 따라 국제천문연맹은 7명으로 구성된 행성정의위원회를 만들고 행성의 정의에 대한 원안을 만들었다. 원안에서는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자신의 중력으로 둥근 모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큰 천체(단, 위성은 제외)를 모두 행성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소행성 세레스·2003UB₃₁₃과 명왕성의 위성이었던 카론도 행성의 지위를 부여받아 태양계의 행성은 12개로 늘어날 전망이었다. 그러나 이 원안에 대해서 다양한 반대 의견이 나왔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부근에 동등한 천체가 있는 것도 행성이 된다는 점이었다. 현재의 이론에서는 행성은 암석이나 얼음 덩어리(미행성)가 서로 충돌해서 합쳐지며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행성은 계속 성장하여 마지막에는 그 궤도 부근에서 특별히 큰 천체가 되고 주변 천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신만의 궤도를 확보함으로써 태양을 원에 가깝게 공전하는 행성이 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명왕성이나 세레스는 행성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최종적으로 행성이 되기 전에 어떤 원인으로 성장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명왕성과 2003UB₃₁₃ 등의 궤도가 찌부러진 원이 되고, 기울어져 있는 것도 이와 관계된다.

결국 국제천문연맹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구형의 천체’라는 원안에 ‘궤도 주변에서 ①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왜소 행성’이 되었다. 또 행성과 왜소 행성, 위성을 제외하고 태양 주위를 도는 모든 천체, 이른바 소행성이나 혜성 등을 ‘태양계 소천체’로 부르기로 했다. 이 정의로 태양계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의 8개가 되었다. 명왕성은 그 궤도 부근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레스·2003UB₃₁₃과 함께 왜소 행성으로 분류되었다. 명왕성은 이제 더 이상 행성이 아닌 존재가 되었다.

40.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태양계 행성의 개수는 가변적이다.
- ② 2003UB₃₁₃은 행성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 ③ 세레스 주변에는 비슷한 크기의 천체가 많다.
- ④ 태양계에는 행성·왜소 행성·위성·태양계 소천체 등이 있다.
- ⑤ 명왕성을 행성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다.

41. 위 글을 읽고 태양계 각 천체의 궤도를 그려본 것이다. 각 천체의 이름으로 적절한 것은?



- | | a | b | c |
|-------|-----------------------|-----------------------|---|
| ① 천왕성 | 해왕성 | 명왕성 | |
| ② 천왕성 | 2003UB ₃₁₃ | 해왕성 | |
| ③ 명왕성 | 카론 | 2003UB ₃₁₃ | |
| ④ 해왕성 | 2003UB ₃₁₃ | 명왕성 | |
| ⑤ 해왕성 | 명왕성 | 2003UB ₃₁₃ | |

42.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충격 보고! 명왕성에도 위성이 있었다.
- ② 명왕성! 최대의 소행성 세레스의 전철을 밟다.
- ③ 궁지에 몰린 명왕성! 예상 밖의 작은 별이었다.
- ④ 명왕성 신비! 과학 발전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 준다.
- ⑤ 명왕성 퇴출! 왜소 행성으로 전략한 이유를 해부해 본다.

43.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양의 주위를 공전한다.
- ② 주변의 천체보다 더 밝다.
- ③ 자신의 궤도 영역을 장악한다.
- ④ 궤도는 타원형이며 기울어져야 한다.
- ⑤ 자신의 중력으로 둥근 모양이 될 수 있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 가치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너무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과 같다’, 즉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밥도 조금 덜 찬 듯 칠부만 먹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는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던 시대에 집안의 어른이 밥을 다 먹어버리면 아랫사람이 먹을 게 없어지므로 그런 전통이 생겼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차라리 밥을 덜 퍼서 나누어 먹었을 것이다. 집안 식구가 쫄쫄 굶으면서 ‘행여 다 드시면 어쩌나’ 쳐다보는데도 혼자 밥그릇을 다 채워놓고 먹다가 할 수 없이 남겨서 아랫사람들을 먹게 했겠는가.

옛날의 ‘상물림’이란 윗사람이 먹고 나면 아랫사람이 차례로 밥을 먹은 것으로, 비록 지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것 역시 함께 나누고 어우러져 살려는 생각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평등한 세상이 아니었고 위아래를 엄격히 따지던 때라, 모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할 생각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먹고 아랫사람에게 물린 ‘상물림’은 ‘지나치면 모자란다’는 세계관이 생활 속에 드러난 하나의 관습이었다. ㉠이 ‘지나치면 모자란다’는 생각은 ‘함께 나눈다’는 생각과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생각을 중용(中庸)이라고 하며, 이는 우리 조상 모두가 중시한 미덕의 하나인 것이다.

한편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의 중용과는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은 균형을 중시하는 서양인의 수학적 의식에 기초했으며 또한 우주와 천체의 운동을 완벽한 원과 원운동으로 이해한 우주관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명백한 대칭과 균형의 의미를 갖는다. 팔씨름에 비유해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똑바로 두 팔이 서 있을 때 중용이라고 본 데 비해 우리는 팔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 해도 아직 승부가 나지 않았으면 중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대칭도 균형을 이루면 중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 서양의 중용관과는 다르다.

이러한 정신은 병을 다스리고 약을 쓰는 방법에도 나타난다. 서양의 의학은 병원체와의 전쟁이고 그 대상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인데 반해, 우리 의학은 각 장기 간의 균형을 중시한다. 만약 어떤 이가 간장이 나쁘다면 서양 의학은 그 간장의 능력을 회생시키는 방향으로만 애를 쓴다. 그런데 우리는 만약 더 이상 간장 기능을 강화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간장과 대치되는 심장의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한쪽의 기능이 치우치면 병이 심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학 처방에 있어서조차 중용관에 기초해서 서양의 그것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적용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과유불급의 생각은 사고의 유연성과 연관돼 있다. 제 것만을 고집하는 경직된 사고에서는 간이 너무 강하고 심장이 너무 약할 때, 오히려 간 기능을 함께 약하게 한다는 생각이 나올 여지가 없다. 또한 상하, 남녀의 구분이 뚜렷한 신분 사회에서 상물림이라는 관습을 통해 그 경계를 허무는 생각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44. 위 글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신 문화’와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쓰고자 할 때, 그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국인의 정신적 특성
- 경직된 사고와 유연한 사고
- ② 전통에서 찾은 우리 정신
- 식사 예절과 평등 의식
- ③ 중용으로 세상 바라보기
- 상물림에 담긴 나눔의 정신
- ④ 중용의 원류를 찾아서
- 같은 뿌리에서 다른 꽃이 피다
- ⑤ 현상적 치료와 균형적 치료
- 사상적 측면에서 본 동·서양 의학의 차이

45.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회화에서는 화폭에 여백을 두어 상상의 여지를 남겼다.
- ② 시조창을 부를 때는 종장의 마지막 음보를 생략하여 여운을 남겼다.
- ③ 우리 음악은 각각의 악기들이 엇박자를 이루면서 어우러진 음악을 만들어 내었다.
- ④ 우리 농촌에서는 감을 수확할 때 ‘까치밥’이라고 해서 몇 개는 새들을 위해 남겨 두었다.
- ⑤ 전통 탈춤은 서양 연극과 달리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어 관객도 공연에 참여할 수 있었다.

46. 위 글을 읽고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상물림이 신분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필연적 관습이라는 주장은 타당한가?
 ㄴ. 중국에서 유래한 사상인 중용을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ㄷ. 동·서양의 문화가 서로 다른데도 유연성의 유무로만 평가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인가?
 ㄹ. 풍속의 하나인 상물림의 의미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원전 중원의 패권은 무사들의 활숨씨가 관건이었다. 100보 떨어진 곳에서도 적을 향해 시위를 당겨 갑옷을 뚫는 무공의 소유자에게, 10보 이내에서 활을 쏘고도 적을 못 맞추는 병사는 승리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의 영웅은 활의 명수로 적수가 없었던 동이족(東夷族)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누가 쏘더라도 5백보 밖에 있는 적의 갑옷을 뚫는 활을 개발한 진(秦)나라 왕에게 중원을 내주고 변방으로 쫓겨가야 했다. 이 가공할 신무기의 이름은 쇠뇌*였다. 똑같은 크기와 강도로 만들어진 이 ㉠ 쇠뇌는 개인의 무공과 관계없이 쏘기만 하면 5백보 밖에 있는 적의 심장에 화살을 꽂을 수 있었다.

쇠뇌로 무장하여 처음으로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은, 적국의 전차가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7개 나라가 서로 달리했던 마차 바퀴 간의 거리를 6척(135cm)으로 통일했다. 또 차이가 심했던 문자와 글씨체, 도량형과 화폐도 통일했다. 모든 마차가 전국의 모든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고, 같은 문자와 도량형,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영토의 통일과 함께 교통과 상업의 획기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진나라 쇠뇌의 전설은 그로부터 2천 년이 지난 후 지구 반대편의 미국 대륙에서 환생했다. 그것은 북군과 남군이 격돌한 남북전쟁에서였다. 전쟁터에서 소총이 고장나는 일은 흔하다. 북군이 쓰던 총은 50여 년 전 엘리 휘트니라는 방적기 생산업자가 만든 것으로 규격이 일정해 부품을 서로 바꿔 끼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남군의 총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었다. 승부는 소총에서부터 갈렸다.

전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제품 심지어 햄버거를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정복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세계 최초 대량 생산 모델인 포드자동차의 T모델, 일정한 규격의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 입맛마저 통일한 맥도널드 햄버거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전자 기술과 IT(정보기술) 첨단 분야가 등장하면서 거액의 세계 시장 주도권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기술이 우수한가도 승부의 큰 요인이었지만 어느 기술이 더 많은 동조 세력을 확보하느냐도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다. 80년대 초반 소니와 마쓰시타가 각각 ‘베타 방식’과 ‘VHS 방식’을 가지고 격돌했던 VCR 기술 표준 전쟁이 그 첫 본보기였다. 우수한 기술의 ‘베타 방식’보다 더 많은 동조 세력을 얻은 ‘VHS 방식’이 표준이 되었다. ㉡ 표준으로 채택된 승자에게는 천문학적 규모의 세계 시장 선점은 물론 막대한 사용료 수입이라는 전리품이 뒤따랐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로서는 강 건너 불 구경이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DVD의 기술 표준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2006 독일 월드컵 때에는 주최국 독일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한국이 만든 지상파 DMB(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기술을 사용해 이동 중인 팬들에게 생생한 경기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의 지상파 DMB 기술이 유럽의 표준으로 채택된 결과였다. 진시황의 쇠뇌에서 시작된 ㉢ 표준화는, 이미 기원전부터 대제국의 건설과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 왔듯이 오늘날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 쇠뇌 : 여러 개의 화살이 잇달아 나가게 만든 활의 한 가지.

47. 글쓴이의 집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준화의 의의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 ② 표준화의 세계화와 원동력을 제시하기 위해서
- ③ 표준화의 파급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 ④ 우리나라 표준화의 과거와 현재를 제시하기 위해서
- ⑤ 진시황과 미국의 표준 정책의 의의를 소개하기 위해서

48. ㉠과 가장 유사한 사례는? [3점]

- ① 일반 냉장고와 달리 김치 냉장고는 냉장 온도가 0±0.5℃여서 김치류를 숙성, 발효시키는 기능이 있어 기존 일반 냉장고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 ② 드보락 자판은 쿼티 자판에 비해 타자 속도가 30% 가량 빠르지만, 쿼티 자판기가 표준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오늘날 드보락 자판을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 ③ 정보통신기술협회가 채택한 휴대폰 단말기 표준 충전 방식은 입출력 접속 단자를 단말기 아래쪽에 설치하여, 제조업체나 모델에 상관없이 같은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낭비를 줄였다.
- ④ 외국에서는 동물원을 나타내는 표지판에 대부분 ‘코끼리’를, 우리나라에서는 ‘기린’을 담았다. ‘기린’ 그림을 넣은 이유는 동물원 표지판으로 코끼리나 원숭이 등의 그림을 사용할 경우 자칫 동물 쇼(show)장과 혼동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이었다.
- ⑤ 책임에도 표준이 있다. 영국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미국은 윤리 경영에 충실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가 생겨났다. 또 유엔은 유엔대로, OECD는 OECD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설정했다.

49. ㉡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속담은?

- ① 누워서 죽 먹기
- ② 꿩 먹고 알 먹기
- ③ 죽 쑤어 개 주기
- ④ 벼룩의 간 빼 먹기
- ⑤ 냉수 먹고 이 쑤시기

50. 위 글을 바탕으로 ㉢의 요인을 <보기>에서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 가변성	㉡ 기술력	㉢ 일정한 규격
㉣ 이동성	㉤ 동조 세력의 확보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